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부산시민 인권보호를 위한

2023 부산 노사민정 인권경영 선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삶의 형태와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미 기업의 인권 책임은 19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확산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국가기본계획에 정책목표로 반영되면서 공공기관 전략경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이미 확산된 ESG 경영 기반의 사회적 가치와 인권경영의 윤리적 책임을 통합하여, 고용노동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두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이에 사람중심, 희망 부천을 위해 노사민정 대표와 공공기관 노사는 「2019 일·노동 4.0 공동협약」을 계승하고, 지난 9월 12일의 ESG 경영 공동 실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2023 부산 노사민정 인권경영 선언”을 채택한다.

1. 국제인권기준 준수 약속

일하는 모든 부산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 UN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등 기업과 인권 관련 모든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며,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인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선다.

2. 공익 우선의 전략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는 위기관리 측면 뿐 아니라,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때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업 경영전략의 핵심적 위상을 차지한다. 임금체계 개편, 노동관계법 개정 등 불확실한 환경 변화와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 모두 부산시의 공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공익 우선의 전략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3. 이중구조 개선(1), 차별없는 일터 조성

노동인권 존중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시작은 일터에서의 약자를 보호하는데서 출발한다.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고충처리제도를 구축하고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주요 의제로 차별 예방 및 차별 시정을 채택한다.



4. 이중구조 개선(2), 책임있는 공급망

우리는 하도급업체 등 협력사에게 인권보호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약자인 협력사를 두텁게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협력사의 노사 당사자에게 모든 업무영역에서의 인권 존중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공계약 상대방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협력사의 숙련인력 확보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5.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

효과적인 인권경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인권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성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소통창구를 강화하는 한편 광범위한 시민사회,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업에 따른 부천시 민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후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6.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우리는 환경보존과 개선을 위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이를 위해 개별 기관 단위가 아닌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부천시 환경개선에 기여한다.

2023. 12. 14.

부천시

시 장

조용익

한국노총부천김포지역지부

의 장

박종현

부천상공회의소

회 장

김종흠

고용노동부부천시청

지청장

김태영



부천도시공사	사 장	원명희	원명희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박만호	박만호
부천문화재단	직무대행	박경식	박경식
부천문화재단노동조합	위원장	김범진	김범진
부천산업진흥원	원 장	신동학	신동학
부천산업진흥원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영	김미영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태승진	태승진
부천아트센터노동조합	위원장	강우리아	강우리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양선희	양선희
부천여성청소년재단노동조합	비대위원장	임수지	임수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 장	신종철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노동조합	위원장	이태영	이태영